

군산 어청도·청암산 명품 관광지 만든다

어청도 천혜 자원·역사 스토리 입혀 관광객 유치

청암산 대나무 숲 학습장 조성 등 생태관광지 육성

군산이 어청도와 청암산 등 지역 대표적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가고심은 섬 어청도로=근대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된 어청도 등대를 보러 가려면 군산항에서 여객선으로 2시간 30분을 가야한다.

섬을 따라 설치된 해안 산책로와 섬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팔각정 등 해양수산부가 명품섬으로 선정할 정도로 볼거리도 풍부하다.

군산시가 전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어청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이

고 있다.

군산시는 우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어청도 여객운임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왕복 4만6000원인 배삯을 2만3000원으로 내려 여객선 이용 부담을 줄였다. 어청도간 항로도 변경, 30분 가량 시간을 단축했다.

군산시는 또 해양수산부의 '2018 어촌관광 이야기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어청도 주민들의 삶과 전해내려오는 설화, 풍경 등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스토리를 발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계획이다.

시는 천혜의 환경을 지닌 어청도, 어청도등대, 전횡장군 전설, 봉수대 등을 활용, 등산로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유치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암산을 생태관광지로=군산 청암산을 가족 단위의 탐방객이 찾는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72억원을 들여 '청암산 생태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청암산 관광지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단장한 군산호수의 금빛 물결을 만끽할 수

있는 '원앙길'과 어린이 숲 체험시설인 '꼬마숲 놀이마당'은 친화적 놀이 공간으로 탐방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

청암산 일대를 도는 청암산 구불길(7km)도 걷기좋은 길로 알려지면서 전국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다.

군은 이달 내 대나무 숲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생태 연못 및 관찰 데크를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 주차장 공사와 꼬마숲 놀이마당 진입로 개선 사업을 완료하는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키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말이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청암산이 자리잡은 만큼 국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의 맛과 멋 택시타고 구경하세요”

고창군, 관광택시 운영

숨겨진 명소·먹거리 소개

고창에서도 관광 택시를 타고 지역 명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이 마련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구수한 입담을 들으며 '고창'의 정과 멋, 맛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택시'가 운영에 들어갔다.

고창 관광택시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타량 택시기사가 유네스코 생

물관광지역인 고창의 주요 관광지과 숨겨진 명소, 특색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창군은 관광택시를 통해 청보리밭, 선운사 동백꽃, 복분자 수확·갯벌 체험, 선운사·문수사 꽃무릇·단풍, 메밀밭, 미당시문학관, 고인돌 유적, 운곡 탐사르스프 등 계절별·테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여행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고창관광택시(063-563-9363)는 3시간에 5만원(5시간 8만원, 추가요금 시간당 2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건강식품 기업 '이름' 정읍시와 투자협약

공장 신축·25명 신규고용

시, 콩재배 농가 도움 기대

건강식품 전문 생산기업이 정읍에 동

지사를 둔다. 정읍시는 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름'과 투자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름은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180억원을 들여 2만400㎡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오는 2019년 6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며 국내의 건강 음료 수

요 증가에 따라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에 공장을 신축하게 됐다든 게 이름측 설명이다.

이번 생산공장 증설로 25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정읍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생식과 두유, 면역 제품을 대표로 하는 건강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664억원을 달성했고 올해 매출액도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밝은 새해 맞이하세요”

고창군은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희망과 꿈이 가득한 새해맞이를 기원하는 보름달·추억만들기·청정고창을 주제로 군청사 주변에 경관조명을 조성, 지난 1일 점등했다. 경관조명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군청사 앞 교차로와 광장을 밝힌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500만 관광객 시대 '관광 순창 만들기' 총력

황숙주 군수, 삶의 질 향상 등 군정 5대방향 제시

순창군이 500만 관광객 유치를 팔을 걷어붙였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관광 순창 만들기'를 비롯한 2018년도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황 군수는 특히 관광 활성화를 통해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조, 주목된다.

우선, 강천산을 전북 대표 관광지로 자

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강천산은 병풍폭포와 단풍 등으로 지난해 방문객(110만 56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체계산 구름다리 건설도 추진한다. 군은 시설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구름다리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

군은 지상 65~70m 높이에 체계산 6~

8부 능선을 잇는 270m 길이의 구름다리가 만들어지면 국도로 단절됐던 체계산이 연결, 강천산과 더불어 등산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여기에 지난 2015년 완공된 향가오래캠핑장(데크 37평)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캠핑장은 지난해 1만 9000명, 올 10월 말까지 2만1500명이 찾는 등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군목 생태공원, 용골산 치유의 숲, 회원산 휴양림, 장유체험관, 조선의 대유학

자인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 선생이 순창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학당 훈몽재(訓蒙齋), 녹두장군 전봉관, 섬진강 자전거길 등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게 순창군 구상이다.

한편, 순창군은 이날 ▲군민 삶의 질 향상 ▲순창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 ▲문화선진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업 지원 ▲관광순창 만들기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

내일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오는 6일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 농식품부 무역진흥 과장은 '독일 식품 부분의 안전성 및 디지털화 무역 정책'을 주제로 식품안전성을 위한 국가 기관별 역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등을 발표한다.

미래포장연구소 신양재 소장은 4차 산업에 관한 기초 강연을 하고 스마트패키징 사례와 방향성을 설명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팀장은 스마트 해빙(식품안전관리인증) 관리 체계 등을 소개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식품기업이 나아가 4차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갈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리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대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전환 4억

투자·매도·교환

- 충진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축적합 60억
- 해남 신이면 5182㎡ 식품공장·전원주택단지 감정25억선 매도13억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사미리 산 70290평 3억9천
- 함평 해보면 2중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용 적합 7억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들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42천
- 함평 2중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델 등 30억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무안군 청계면 산 16166㎡(4890평) 공사가5억5천5백 매도 5억6천5백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원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델 땅 364㎡ 객실17 달랑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m²

- ▶매매가 상당 후 결정
-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8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신도시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